

# “정교한 손글씨 ‘세필’ 맥 끝길까 걱정입니다”

광주 유일 '세필' 명인 김재현 목향인쇄 대표

### 한때 청첩장 등 하루 수 백장 작성...컴퓨터 보급에 수요 급감 '광주 인쇄 장인' 제1호 등록...“정자체 역사 사라지지 않기를”

오래전 광주 동구 서석동의 한 인쇄가게에서는 하루에도 수 백장씩 사람사는 이야기가 가는 붓으로 정교하게 기록됐다.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가느다란 붓으로 쓰는 '세필'이 각광을 받았다.

여수 출신 김재현 목향인쇄 대표(68)는 '세필'(細筆) 장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등이 주최하는 '광주 인쇄 장인' 제1호로 등록됐으며 분야는 '세필'.

김 대표를 만나기 위해 찾은 목향인쇄소. 이곳에선 출력부터 복사, 명함제작, 현수막, 제본, 팸플릿 제작 등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인쇄가게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실내는 어느 인쇄소와 다를 바 없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인쇄소 한 칸에 어렵잡아 100여 점 정도 돼 보이는 세필이 자리했다.

세필은 주로 안내장을 기록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던데 종이는 한자지부터 타자지까지 다양하다. 1980년대만 해도 광주에는 다섯 명의 세필 전문가가 있

었지만 현재는 김 대표 혼자 남았다.

40여년 전, 그는 동구 서석동에 목향인쇄소를 열었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광주에 정착하게 됐고 당시 세필 관련 업을 하던 인쇄소 지인과 연이 닿아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하는 일에 소질이 있었던데다 학창 시절 서예학원에서 배운 글씨 덕분에 빠르게 적응을 했다.

김 대표는 당시에 '눈 코 뜰 새 없다' 시절로 기억한다. 청첩장, 인사장, 부고장부터 관공서와 학교에서 의뢰하는 임명장과 졸업장 등에 이르기까지 세필을 찾는 이유는 각각각색이었다. 가장 바쁠 때인 연말에는 하루에도 몇 백장씩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경조사와 영광의 순간들을 글씨로나마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면서 “안내장을 받아 든 이들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냐고 물을 때는 참 뿌듯했다’고 회상했다.

흔히 취미로 접하는 서예의 경우 예술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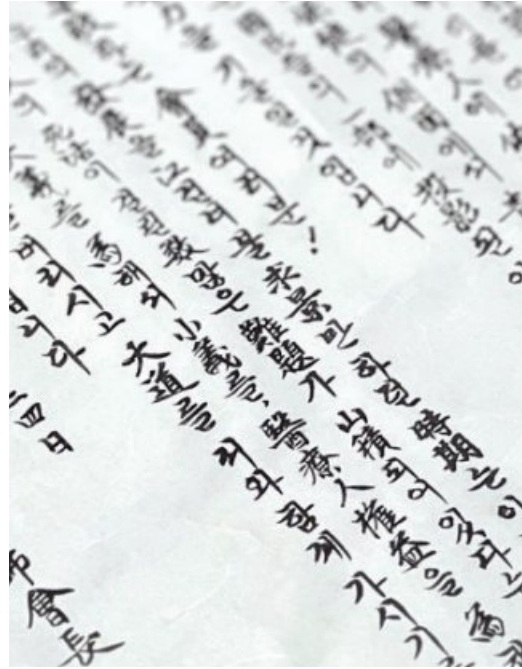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값비싼 세필 작업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 시대의 변화가 가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김 대표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인쇄업에 뛰어들어 관련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세필보다 인쇄업이 주가 됐지만, 그는 언제나 시대에 발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김 대표의 가슴 한편에는 세필에 대한 애정이 자리한다. 어쩌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찾아와 세필 한장 써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흘림체를 사용하는 반면, 세필은 고른 글씨로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자체를 쓴다. 많은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값비싼 세필 작업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 시대의 변화가 가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김 대표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인쇄업에 뛰어들어 관련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세필보다 인쇄업이 주가 됐지만, 그는 언제나 시대에 발 맞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김 대표의 가슴 한편에는 세필에 대한 애정이 자리한다. 어쩌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찾아와 세필 한장 써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세필 수요가 줄면서 이를 업으로 하는 이들도 자연스레 사라졌어요. 서예를 기반으로 수십 년간 숙달해야 하는 탓에 ‘세필 2세’를 꿈꾸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사람이 쓰는 정자체의 역사가 뒤안길로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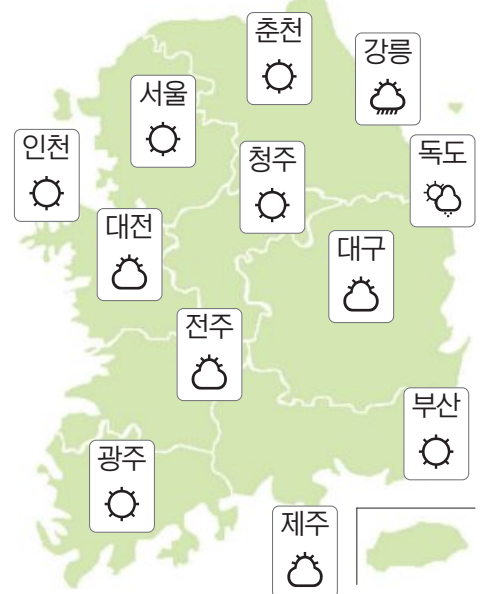
해돋이	07:27	달뜨기	19:26
해질	18:06	달짐	08:29

## 일교차 커요

대기 매우 건조하고 낮밤 기온차 크겠다.

광주	맑음	0/14	보성	맑음	-2/13
목포	맑음	0/9	순천	맑음	0/15
여수	맑음	4/12	영광	맑음	-2/9
나주	맑음	-3/13	진도	맑음	1/8
완도	맑음	2/13	전주	구름맑음	-1/12
구례	구름맑음	-3/15	군산	구름맑음	-2/10
강진	맑음	-1/14	남원	구름맑음	-3/13
해남	맑음	-3/12	흑산도	맑음	4/8
장성	맑음	-3/13			

## ◇ 전국 날씨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0.5~1.0	0.5~1.5
	면바다(남)	0.5~1.5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서)	1.5~2.5	1.5~2.5
	면바다(동)	1.0~2.0	1.0~2.0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24	02:56
		20:56	15:39
여수		04:00	10:26
		16:25	22:28

## ◇ 생활지수

감기	천식	미세먼지
주의	위험	니쁨

## ◇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1	-1/11	2/9
11(토)	12(일)	13(월)
1/13	2/11	5/8

## 최갑렬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장학금 쾌척



최갑렬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6일 (재)담양장학회(이사장 이병노 군수)에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2019년 설립된 (재)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은 교육사업 및 지역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해 꾸준히 기탁과 아울러 활발한 자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담양장학회 제공〉

## 대한석유협회 취약계층 난방유 5000만원 기탁



대한석유협회(회장 박주선)는 지난 2일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 전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사회공헌' 협약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3일 사회공헌사업 확산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영·호남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김세훈·손영만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영·호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사는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주요 골자로 ▲고향사랑기부제상호기부 ▲공동사회공헌활동 실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등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공공기관이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상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데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ESG 경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공사는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높아진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자 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작으로 두 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서장원 제26대 광주지방기상청장 취임

광주지방기상청은 제26대 광주지방기상청장으로 서장원(57·사진)씨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청장은 한양대 지구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지구해양학과에서 해양물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기상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기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스펙트럼을 쌓아온 서 청장은 업무추진력이 우수하며, 폭넓은 안목과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청장은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업 대응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상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 알림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민간근로,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

- 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탁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

- 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

- 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노인지도자대학 제36기생 모집=노인지도자 자질과 교양, 노년의학, 경영, 100명 선착순, 28일까지, (사)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연합회 062-652-7374.

### 부음

▲이봉엽씨 별세, 김수현(팅커벤티원 대표)씨 장모상=발인 8일 오전 7시 50분 광주서구 풍서좌로 천장리제사당 202호실. 010-2647-9557